

도로 위 낙하물 차량 파손 보상 '막막'

광주시·5개구청 관할 책임에도 사고보상·예방대책은 뒷전 경찰 "수사 대상 아니다" 사고조사에 소극적 매년 100건 이상 발생... "CC-TV라도 설치했으면"

회사원 박모(46·광주시 북구)씨는 최근 광주시 서구 관천동 인근 무진로(면도 4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어쩔 할 사고를 당했다. 화물차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철판(가로 20cm, 세로 20cm)이 차량 밑으로 달려드는 바람에 연료통이 찢어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로 관리 주체인 광주시는 낙하물만 치울 뿐 사고 예방과 보상 등은 외면해 시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단속·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마저도 인명피해가 없는 낙하물 사고는 '내사 종결' 대상이라는 이유로 사고조사에 소극적이어서 피해 운전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

년 151건 등 매년 100건 이상 발생했다. 특히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평동산단, 하남산단 등을 연결하는 무진대로와 광주 제2순환도로 등에서 화물차량에 의한 낙하물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게 자동차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한 자동차 보험사 관계자는 "광주시가 도로관리 주체인 만큼 낙하물 사고가 많은 무진대로 등에 CC-TV를 설치하고, 도로 위 낙하물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노력해야 하는데, 사고가 나도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적재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일부 차량은 이를 지키지 않은 채 도로 위를 누비고 있다.

계가 적재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고, 경찰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화물차 적재물 단속에 소극적이다 보니 낙하물 관련 교통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광주시 등 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다. 자동차전용도로는 광주에서, 그 외 도로는 5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낙하물 사고보상이나 예방대책은 뒷전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차량 낙하물 사고 시 억울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면서 "국가배상신청 방법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전부 기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던가, 스스로 차량을 고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생수 드시고 무더위 이기세요" 지난 31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월곡동 도로 건널목에서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무료로 생수를 나눠주고 있다. 생수 나눔행사는 오는 3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31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월곡동 도로 건널목에서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무료로 생수를 나눠주고 있다. 생수 나눔행사는 오는 3일까지 진행된다.

는 의혹을 샀다. B교사도 이 학교 다른 여교생을 영화관 등에 데리고 다니면서 승용차 안에서 추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성폭행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학교 측은 두 교사의 성비위 사실이 학내에 퍼지자 두 교사와 피해 학생들에 대한 내부 조사를 거쳐 2016년 5월 1개월의 경징계 조치를 했다.

이 사건을 법과 규정대로 처리했다면 이 같은 성비위 사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서 3년 전 발생했던 성비위 사건이 은폐됐던 경위에 대해서도 "재단에서 보고를 성실히 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현재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서 3년 전 발생했던 성비위 사건이 은폐됐던 경위에 대해서도 "재단에서 보고를 성실히 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현재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연합뉴스

폭염속 작업하다 쓰러진 60대 근로자 숨져

광주 농성동 아파트 현장서

폭염속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가 발견될 당시 기온은 33도였다. 경찰은 A씨가 열사병과 탈수 증세로 쓰러진 뒤 뒤늦게 동료에게 발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 S아파트 신축현장에서 A(66)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부터

아파트 바닥면 포장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의 심폐소생술을 받은 A씨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가 발견될 당시 기온은 33도였다. 경찰은 A씨가 열사병과 탈수 증세로 쓰러진 뒤 뒤늦게 동료에게 발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태권브이는 마징가 제트와 구별되는 독립 저작물"

서울지법 원고승소 판결

국산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V)가 일본 만화 캐릭터 '마징가 제트'(Z) 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완구류 수입업체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는 태권브이에 관한 미술·영상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A씨의 회사가 제조·판매한 나노 블록 방식의 완구가 태권브이와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

며 소송을 냈다. A씨는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를 모방한 것이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태권브이는 등록된 저작물로,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와는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태권브이는 마징가 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태권브이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旗)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본 문화에 기초해 만들어진 마징가 등과는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도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리콜 결정 BMW 차량에서 운행 중 또 불

최근 잇따른 주행 중 화재 사고로 리콜(시정명령) 결정이 내려진 BMW 차량에서 운행 중 또 불이 났다.

지난 31일 인천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6분께 인천시 서구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가좌IC 인근에서 주행 중인 420d 차량에 불이 붙었다.

이 차량 운전자는 소방당국에 "엔진룸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화재 당시 운전자 등 2명이 차량에 타고 있었으나 모두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

해는 없었다. 불이 난 차량은 2014년식 BMW 420d로 최근 BMW코리아가 조치한 리콜 대상에 포함된 차종이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9분 만에 이날 오후 4시 35분께 불을 모두 꺾었다.

BMW코리아는 이날 26일 BMW 520d 등 총 42개 차종 10만6317대를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 성추행 파문 여고, 3년전 성비위 은폐 의혹

성희롱 교사 11명 수사의뢰 2016년엔 남 교사 2명 연루

"큰 귀걸이 하면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 같다. 몸매 예쁘네 엉덩이도 크네. 똥똥한 여자가 치마 입으면 여겼다." 광주시교육청이 31일 또 여고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들은 피해 진술의 일부다. 이 학교에서 성추행·성희롱으로 물의를 빚자 시교육청은 조사를 벌였다. 시교육청 조사결과 이 학교에서 이같은

성희롱·성추행을 저지른 교사는 현재까지 11명으로 드러났다. 이 숫자는 "저 선생님께서 내가 직접 당했다"는 직접 피해자 진술로 확인된 교사에 한정된 것이다. 이젠남 시교육청 정책기획관은 "한 교실에서 반 전체 학생에게 한 말로 모든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 특정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많은 학생이 피해 사실을 밝힌 것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학교 자체 전수 조사에서는 860여명의 전체 학생 중 약 180여명의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교사로 지목된 11명에 대해서는 일

차적으로 우선 분리조치 하도록 학교에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학생 개별 조사결과 관련자 전원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도 할 방침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교사의 성희롱·성추행이 비단 이 학교에만 국한되었느냐하는 점이다. 이 학교는 3년전 시교육청에서 교장을 파견하고 관선이사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상황에서 지난 2016년 남교사 2명이 연루된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A교사는 3학년 여교생을 하굣길에 승용차에 태워 신체를 만지는 등 지속적인 성추행을 했다

"왜 부임인사 안와" 교사들에 막말·욕설 갑질 교장 중징계



교사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고 제멋대로 휴가와 연수를 가는 등 갑질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장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중징계를 받을 처지. ○···지난 3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A씨는 소속 분교교사에게 "왜 학생들을 데리고 부임 인사를 오지 않았느냐"며 욕설을 퍼붓고 직원회의에서 교

사와 교감에게 막말을 하는가 하면, 2년 반 동안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13차례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병가와 공가를 쓰고 출장 중에도 8차례나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것.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A교장이 직장 이탈 금지와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상가원룸 매매 [신축전문]

□ 월곡시장 2분 (일신아파트 옆)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 **매가 9억3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 5백 월40만 (용 2천)

▶ **시세 1억3천**

▶ **매가 5천900만**

① 상무지구 6층상가 (23평) 보500만 월40만 ▶ 매가6천400만 (용 2천만)

②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4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 매가 8억4천만 원룸12개, 투룸2개)총 14개 (월수익 550만)

④ 전대정문 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 (용3억5천만가능)

010-6670-9800
062-382-5500

법률 경매

(기초부터 ~ 실전 전문)
★ 7월 개강 선택순 모집 ★

(주)대신경매

1) 남구 송하동 (근린시설)
토 138평 건물 491평
▶ 감평가 12억1천 → 최저가 8억5천

2)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토 69평 137평
▶ 감평가 13억 → 최저가 7억3천

3) 광산구 소촌동 (다가구 원룸)
토 80평 건 144평
▶ 감평가 3억5천5백 → 최저가 2억4천8백

4) 북구 오치동 (4층 상가건물)
토 199평 건 370평 (1층 대형 마트)
▶ 감평가 17억2천 → 최저가 12억

토지 기타 추천

1) 광산구 도천동 (1,373평)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선 대로 집 (하남 공단도로) ▶ 감평가 35억 → 최저가 35억

2) 진곡산단 공장용지 (1,922평) ▶ 감평가 25억 → 최저가 25억

3) 서구 덕흥동 (1,210평) ▶ 감평가 12억8천 → 최저가 12억8천

4) 광산구 지족동 (98평) ▶ 감평가 1억1천만 → 최저가 1억1천만

5) 나주 금천면 과수원 (2,575평) ▶ 감평가 5억5천 → 최저가 3억8천

★ **평택 투자자 모집** ★

송탄역 1분 초역세권 투자자 모집
연 20% 보장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A.P.T / 주택	공장 / 기타
① 북구 유동 (숙박시설 토100평 건288평) ▶ 감평가 9억3천 → 최저가 9억3천	① 서구 병천동 현대아파트 (40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2억	⑥ 광산구 월전동 (공장) 토1999평 건2,400평 ▶ 감평가 88억 → 최저 47억
②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188평 건272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7억2천5백	② 광산구 수원지구 수원리채 (32평) ▶ 시세 8억 → 최저가 4억2천	⑦ 광산구 오성동 (공장) 토506평 건2526평 ▶ 감평가 12억 → 최저 9억9천
③ 서구 치명동 (3층상가 103평) ▶ 감평가 8억 → 최저가 5억6천	③ 북구 운남동 현대아파트 (25평) ▶ 감평가 1억9천 → 최저가 922천	⑧ 광산구 도천동 (공장) 토50평 건237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894천
④ 북구 용봉동 (2층상 6층) 117평 ▶ 감평가 8억1천 → 최저가 5억7천	④ 첨단지구 호반베르디움 (25평) ▶ 감평가 3억95천 → 최저 3억95천	⑨ 전남 장성 북 (공장) 토500평 건760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1억6천
⑤ 북구 양산동 (근린상가) ▶ 감평가 4억4천5백 → 최저가 4억4천	⑤ 광산구 운남동 남영아파트 (24평) ▶ 감평가 1억6천 → 최저 1억2천	⑩ 남구 백운동 (빌라) 토65평 건145평 ▶ 감평가 3억96천 → 최저가 2억

010-7384-7800 010-6670-9800

직원구할 (경매 직원, 컨설팅, 부동산관련 함께하십시오)